

# 한국전력공사 올해 업무계획

한국전력공사 기획처

지난 2006년은 고유가체제의 지속 및 국내경기 성장세가 저하됨에 따라 전력판매 증가율이 둔화되고 전력설비 사고가 빈발 등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다.

그러나 이러한 역경속에서도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되어 '변화와 혁신'에 매진한 결과 대내외적으로 높은 성과를 인정받아 많은 수상을 받은 한 해이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세계 전력산업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에디슨상을 수상하였으며, 미국 Platts誌로부터는 아시아·태평양 최우수전력회사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룩하였다. 또한 국내에서도 공기업 고객만족도 8년 연속 1위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달성하였으며, 공기업으로는 최초로 옴부즈만 대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금년에도 집단에너지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 등 판매부문에서의 경쟁체제 확대와 수입 발전연료가격의 고공행진에 의한 구입전력비 상승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나 글로벌경제확산에 따라 "국제경쟁력 제고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아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올 한 해에도 다음 주요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 【사업구조 부문】

전력산업 공동발전 및 산업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전력그룹사간 협력체제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전적 경영통제 및 경영간섭을 최소화하고 전력그룹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여 사장경영계약에 반영한 후 그 달성여부를 평가하는 선진형 그룹사 경영관리시스템을 확립하고자 한다.

그룹경영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서 그룹사간 사안

별 경쟁과 협력을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에도 고유가 행진의 지속이 예상되므로 발전비용 절감을 위한 회사별 노력도를 평가하고, 발전연료용 유연탄 공동구매를 적극 유도하여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을 최대한 흡수토록 노력할 계획이다.

해외사업은 사업경험이 풍부한 한전이 창구가 되어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한수원 및 발전회사들의 참여를 허용하며, 신규사업 진출 등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전력그룹이 공동으로 신재생 에너지사업 투자 확대 및 CDM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자 한다.

전력산업 상생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출촉진을 위한 해외마케팅 지원, 신기술제품의 활용촉진, 공공구매 확대를 통한 선도적 지원 등 전력그룹 차원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경영시스템 부문】

올해는 지난해 9월에 출범한 독립사업부제의 성공적인 정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자율 책임경영이 촉진될 수 있도록 위양가능한 권한을 추가 발굴하고, 사업부제 시행 결과를 상시적으로 분석하여 미비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보완 할 계획이다.

독립사업본부장은 위임된 권한을 적절히 행사하여 내부경쟁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고' 및 '경영효율 향상'이라는 사업부제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겠다.

경영투명성 강화 및 스피드경영을 위해 도입된 ERP시스템의 최적운영도 중요 과제이다. 상시적 혁신시스템 구현을 위해서 독자적인 ERP 운영능력 확보와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에 노력하며,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등 시스템의 고도화 작업도 병행할 계획이다.

Clean Power-KEPCO 9.9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단위로 윤리합습조직을 구성·운영하고, 자체 윤리 점검 활성화로 자율실천적 윤리문화를 정착시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에서 9.0점 이상의 청렴지수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겠다.

중장기전략과 연계한 45개 핵심성과지표에 의거하여 지속가능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가난하고 소외받은 사회적 약자들과의 나눔경영을 확대하고 송변전/배전분야에서

환경경영의 대외적 인증제도인 ISO 14001 획득을 추진하고자 한다.

## 【영업부문】

우리 회사는 지난해 공기업 고객만족도 8년 연속 1위라는 큰 위업을 달성하였지만 고객 요구수준의 지속적인 향상과 전력설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확산 등으로 최고 지위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갑'의 입장에서 탈피하여 '을'의 마음가짐으로 고객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려 지속적으로 고객중심의 제도개선 및 고품질 전력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역전기사업자 확대 등 판매경쟁에 대비하여 집단 에너지사업·구역전기사업 참여가 예상되는 고객에 대하여 별도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당초 제도에 맞지 않는 구역전기사업자의 전기 단순재판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 공급요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

설비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최신 전력 IT기술을 활용하여 전력계통 운영을 선진화하고, 신개념 전기품질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한다. 또한 설비사고 최소화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설비를점검하고 취약개소를 보강하며, 사고발생시 해당 사업소장 및 담당자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다.

전력설비의 적기 확충을 위해서는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모든 민원사항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처리하여 전력사업에 대한 우호적인 지지기반 확보에도 주력하고자 한다. 주요 사업의 적기 수행을 위해서 프로젝트관리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사업관리를 할 계획이다.

에너지저소비형 사회구현 및 전력설비효율성 제고

를 위해 부하관리제도 약정률을 높이고, 고효율 조명 기기 및 인버터 등 고효율기기 보급을 촉진하며 직접 부하제어 및 비상절전 시범시행 등 전력수급비상시에 대비한 대비능력 강화도 주요과제이다.

중국 산서성 프로젝트 수주 등 해외사업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추진 조직을 개편하고, 통합적 해외사업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리스크 최소화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장기 연구개발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성과관리를 강화하고, 연구기관간의 협력 체제를 활성화하며 및 보유기술 가치 극대화에도 노력하여야겠다.

## 【재무부문】

유가불안정 지속 및 추가적 금리인상 등 향후 재무여건 악화가 예상되므로 불확실한 미래 환경에 대비한 전략적 재무정책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적정 투자규모·배당수준·자본구조를 설정하여 위기 시나리오별로 대응방안을 사전 강구할 계획이다.

ERP 기반의 상시적 재무혁신체제 정착을 위해 ERP시스템과 EVA 및 ABC제도를 연계 통합함으로써 시스템적으로 원가절감 및 부가가치 증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한다.

성과목표와 예산운영을 연계하고 성과보상체제를 구축하며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을 강화할 계획이다. 사업부 책임예산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예산권한을 확대 위양하여 사업부 예산운영의 실질적 자율권을 보장하고 예산자율운영에 대한 사후 피드백도 강화하고자한다.

늘어난 부족자금 충당을 위해서 차입선을 다변화하고, 금융기관간 경쟁을 유도하여 금융비용을 최소화하고 회계업무 집중화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회계센터’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 【인력부문】

“기업 경쟁력의 원천은 사람에게 있다”는 말과 같이 글로벌인재가 없는 글로벌 종합에너지 기업이란 상상할 수가 없다. 작년에 수립된 글로벌 인재 양성프로그램 계획에 의거 금년에는 총인력 대비 3.0%내외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한다.

회사가 필요로 하는 최적 인재 확보를 위해서 전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채용제도를 개선하고, 해외사업 및 연구개발 등 향후 추가소요가 예상되는 부문에의 인재를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세계 최고의 기업 교육기관인 GE크론트빌을 벤치마킹하여 중앙교육원 과정운영을 종전의 직무교육중심에서 비전 및 리더쉽 등 변화관리 중심으로 변경하여 회사의 혁신활동을 확산하는 중추기관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또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평가 및 피드백을 강화하여 교육효과 제고에도 주력하고자 한다.

경영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전략적 조직운영을 위해서 권한위양 확대를 통한 본사 조직의 플랫폼화과 슬림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자 한다. 독립사업부제 시행에 맞추어 본사와 사업부간의 합리적 인사관리 방안을 재정립하고, 사업부간의 효율적인 인력교류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성과중심의 인사평가시스템인 목표관리제도(MBO)를 시범 운영하여 그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전사적으로 성과평가시스템을 확대하고자 한다.